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 ...

영혼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몰도바 선교 시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함께 해주셨다.

풍성하신 하나님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끊임없는 축복을 받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비결을 배운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대표적인 속성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사람의 근본 마음에서 벗어버려야 할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속성에 대해 살펴본다.

“사랑의 주,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파킨슨병을 치료받아 걷고 뛸 수 있게 된 박만배 성도와 생명의 제단에 인도받아 간증을 치료받은 일본 최복순 성도의 간증.

# 만민뉴스

제807호 2017년 9월 2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이스라엘, 몰도바에 불일 듯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주의 종과 성도들을 충만케 하다



세계 선교의 비전을 창대히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는 최근 이스라엘과 동유럽의 몰도바에서도 목회자 세미나 및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집회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이스라엘에서는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기념하는 집회가 매년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 주최로 개최되고 있다.

첫 집회는 9월 7일, 텔아비브 길갈호텔에서 100여 명의 목회자가 모인 가운데 진행됐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서도 참석했다(사진 2, 3). 강사 이수진 목사는 '난해구절 풀이'(딤후 3:16; 벧후 1:21)를 주제로 '겉옷을 팔아 겹을 사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에 대해 전한 후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전했다. 또한 목회자들이

죄를 버리고 마음을 진리로 이룬 만큼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아 성도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스라엘의 덕망 있는 목회자 세라포프 목사는 "이수진 목사님이 증거하신 모든 말씀은 성경적으로 어떤 오차도 없는 완벽한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와 신앙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라고 말했다.

9월 9일에는 GCN방송을 비롯 TBN 러시아, CNL, TBN 발티아, 인빅토리 등 러시아어권 방송사들과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 되는 가운데 키부츠 쉬과임 대강당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능의 손수건 집회가 있었다(사진 5).

강사 이수진 목사(사진 1)는 '치료하는 여호와'(출 15:26)라는 말씀으로 질병의 원인은 죄로 인한 것이며,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것, 계

명을 지키지 않은 것, 신앙이 정체된 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증거하였다. 그 뒤 권능의 손수건으로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자 단에는 간증 행렬이 이어졌다.

많은 사람이 시력이 회복됐으며, 한 여성은 심한 관절염과 통증으로 집회 전까지만 해도 혼자 걸을 수 없었는데 기도받은 후 통증이 사라지고 힘이 주어져 혼자 걸어 나와 행복하게 간증했다. 이 외에 마비가 풀리고, 통증이 사라지는 등 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100여 명 참석했는데, 한 여성은 관절염과 발꿈치 통증으로 잘 걷지 못했으나 기도받고 잘 걷게 됐고, 무기력증과 온몸의 통증이 사라졌다고 간증하는 이도 있었다(사진 7~11).

9월 11일에는 동유럽 몰도바 수도 키시너우 시에 소재한 몰도바만민교회에서 1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일 집회 및 성령충만기도회로 진행되었다. TBN 러시아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아 변화된 한 형제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현재 약 70명의 성도로 날로 부흥하고 있다(사진 6).

강사 이수진 목사는 집회에 앞서 성도 상담 및 세례식을 집례하였으며, 집회에서는 '열 므나의 비유'(눅 19:12~24)의 말씀을 증거한 후 성령충만기도회를 인도하였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눈물로 회개하고 성결을 향한 뜨거움으로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 목사가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자 관절염, 간질, 피부병, 각종 통증 등을 치료받아 간증하였다(사진 12, 13).

한편,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솔리스트 주성결 집사와 파워워십팀이 동행하여 매 집회 시 히브리어, 러시아어, 영어 찬양과 무용으로 참석자들을 감동케 했으며, 성령으로 하나 되는 충만한 시간을 선사하였다(사진 4).





당회장 이재록 목사

# 풍성하신 하나님

고 불순종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마지막 양식으로 엘리야를 공제하였더니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처음 만난 사람이 대뜸 가뭇이 끝날 때까지 생명을 부지할 남은 양식을 요구하는 행동은 상식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를 ‘염치없다. 공색한 과부의 양식을 구하는 도적이다.’라며 판단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겸손함과 상대의 신실함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비롯되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보장하심을 보아오셨기에 목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단에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순종하시니 질병 치료 등 각종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으시지요.

‘성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구원과 성결을 위해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목자의 모습을 보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는 목자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해졌습니다. 목자를 믿고 사랑해 따라오는 분들이 큰 힘을 얻어 영과 온 영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셔서 변함없이 보장하시는 권능의 종을 존중하고 신뢰할 때에 임하지요.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따르는 종이려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 셋째, 불평이나 욕심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남은 양식을 달라 할 때, 만일 사르밧 과부가 오직 자신과 가족만을 위하느라 양식을 움켜쥐고 내주지 않았다면 축복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는 순종하여 축복은 받아도 만일 “가루와 기름이 왜 이 정도밖에 안나옵니까?” 하며 불평하거나 “양식 말고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하며 욕심을 냈다면 그나마 받은 축복도 끊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마음을 품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김 집사네는 축복을 많이 받아 집도 사고 현금과 찬조도 많이 한다던데, 우리는 언제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며 부러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낙심하는 경우, 이것은 욕심으로 인해 지금 받고 있는 축복을 쉽게 잊어버리므로 생기는 마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분명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욕심이 있으면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를 잊기 마련이지요.

욕심으로 인해 감사의 샘이 마르면 더 이상 축복의 물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마음과 그 가운데 드리는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마중물이란 수동 펌프로 물을 길어 올릴 때 펌프에 먼저 붓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말합니다. 적은 물을 넣어도 펌프에서 훨씬 더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지요. 예전에는 삶이 어려웠지만 이제 축복받은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으면 만족할 줄 알고 감사를 잊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식하지 않고 어찌하든 받은 축복을 자신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 사용하려는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욕심으로 길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떡 한 조각, 마실 물 한 모금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나누려는 마음이 풍성한 축복을 부릅니다. 이러한 선행이 쌓여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이처럼 욕심 없는 마음을 이루어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이방인임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향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오직 믿음과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가로되 ...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열왕기상 17:12~16)

## 2.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르밧 과부가 풍성한 축복을 받은 비결

첫째,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마지막 양식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신과 아들의 죽음이 앞당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아멘’ 한 것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한번 믿어 보자.’고 요행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나온 진실한 순종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3장에는 온전한 십일조를 하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유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 지킴받는 지름길 또한 ‘순종’입니다. 오랫동안 앓던 질병을 치료받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계명을 하나, 둘 지켜나가며 악을 버리고 충성하면서 성령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니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계속 핑계를 대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 둘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고 귀히 여겼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처음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마음에 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며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즐겨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심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도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 1.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받은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어느 날 시돈에 속한 사르밧 지방에 사는 이방 여인이 성문 근처에서 뿔감으로 쓸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물을 달라 합니다.

이에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떡도 가져오라고 청하자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며,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아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딱한 사정을 털어 놓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으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변명하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 근본 마음에서 벗어나려야 할 대표적인 속성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변화되기 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고백했다. 하지만 사도가 된 후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하며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 내 가족, 내 소유, 내 자랑,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자존심, 내 고집 등은 ‘자기’와 연관된 것이다. 사람의 근본 마음에서 벗어나려야 할 가장 대표적인 육의 속성들을 살펴보면서 자기를 철저히 깨뜨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란다.

## 변개함

영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이며 육은 변질되고 썩어지는 것이다. 육이 있는 만큼 변개하기에 육의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신도 알 수 없다. 무엇을 하리라 굳게 결심했어도 다음날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런 변개함의 속성을 벗어나려지 않으면 구원받은 기쁨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가도 연단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치료받아

감사한 마음에 충성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감사가 식고 ‘이제 좀 쉬고 싶다, 내 시간도 갖고 싶다.’ 하면서 점점 육적인 것들을 취해 나간다. 금식이나 기도를 작정했다가도 미루거나 어기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작정하고도 가까운 마음에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말을 바꾼다.

그러므로 흑여 “하겠다.” 하고 하지 않고, “하지 않겠다.” 하고 하는 등 변개하고도 대

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변개함이 없으면 ‘하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다. ‘버린다’ 했으면 버리고, ‘지키겠다’ 했으면 한결같이 지킨다. 한번 받은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으니 항상 찬만할 수 있다.

변개함의 속성이 있다면 불같은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신속히 벗어나려고 영의 마음, 온 영의 마음을 이루기 바란다.

## 간사함

간사함이 있으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기 유익에 따라 말과 행동이 수시로 변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정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계락을 꾸민다.

간사한 사람은 상대를 염려하는 척하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가 하면,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 남의 공로는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잘못은 남의 탓으로 만들기도 한다.

또한 좋지 않은 결과는 책임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며, 어떤 잘못을 했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비겁하게 핑계를 만들어 환경 탓을 하거나 남의 탓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 이처럼 근본 마음에 간사함이 있으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난처한 상황이 되면 당장의 어려움만 면하기 위해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자기 잘못 때문에 남이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써도 모른 척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자기 유익을 좇아 이랬다저랬다 하고, 혹은 계계를 꾸며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남을 어렵게 하는 부끄러운 모습은 결코 없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번 정한 것은 한결같이 지키며 또 진실하고 곧은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간음

간음이라는 죄성은 조금의 빌미라도 내어 주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늦추서는 안 된다. 성경을 보면 행위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다(마 5:28).

이 외에도 동성보다 이성과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에게 관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거나 이성 앞에서 말투나 태도가

달라지는 등의 모습이 자신에게 있다면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된다.

간음을 벗어나려기 위해서는 먼저 안목의 정욕을 철저히 차단하고 생각과 마음을 제어하고 불같이 기도해야 한다. 중도에 멈추지 않고 죄성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노력해야 하고, 미세한 조짐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근본 뿌리를 뽑기까지 안목의 정욕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상 것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 당장은 행함으로 간음하지 않는다 해도 육이 내 안에 계속 심겨지니 죄성이 버려지지 않는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하신 대로 오직 정결한 것만을 눈과 귀와 입에 담고, 육의 속성들을 벗어나림으로써 거룩하고 흠 없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기를 바란다.

## 이기적인 마음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변개하기도 하고 간사하게 이랬다저랬다 하기도 하며, 거짓말을 하거나 계락을 꾸미기도 한다. 상대가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미워하고 멀리하며, 나를 배려하고 대접해 주지 않으면 감정이 상한다. 또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 함께하던 사람들을 배신하고 당을 지어 분리해 나가기도 한다.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알면서도 그 도리를 택하기보다는 당장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을 택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당부 하시며,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교훈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곧 이기적인 마음을 철저히 벗어나려지 않으면 결국 변개하고 배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 하나님과 주님께 사랑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이기

적인 마음을 철저히 벗어나려야 한다.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이라 해도 범사에 자기를 비워나가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릴 수 있는 참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이므로 이러한 사랑을 깨달아 주님과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이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드릴 수 있고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



## “파킨슨병을 치료받아 이제는 걷고 뛸 수도 있어요!”

박만배 성도 (66세, 2대대 19교구)

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 매주 일요일이면 경마장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아내와 딸이 너무나 한심해 보여 매일 핍박하며 가족과는 대화도 하려 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 2010년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의사는 ‘파킨슨병’이라며 몸이 점점 굳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화되더니 얼굴 근육이 굳고 왼쪽 다리는 바닥에 끌려 제대로 걷기 힘들었습니다. 혼자서는 벡타이 하나 매는 것도 어려웠고, 몸뿐 아니라 마음도 불안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하였지요.

2014년 12월, 아내와 딸이 만민중앙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더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심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있던 터라 2016년 5월, 아내와 딸이 간청하기에 저는 가족과 함께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처음 교회에 가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악수를 하는 순간, 마치 당회장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듯한 감동과 함께 거짓이 없고 진실한 교회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등록하고 매주 주일을 지키면서 당회장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성도가 온갖 병을 치료받은 간증들을 들으니 저도 치료받고 싶어졌습니다.

만민기도원 환자집회에 참석하면서 이복님 원장님이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해 주실 때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었고 성령의 불이 임했으며,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이 사모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여 낮에는 기도원 집회, 밤에는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매일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행복은 더해졌으며 몸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니 떨리던 몸도 이제는 안정을 되찾아 떨리지 않았지요. 어느새 굳었던 얼굴 근육도 펴지고 두 다리로 걸으며 팔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벡타이 매는 것도, 면도도 스스로 하고 말이지요.

2017년 8월,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한 뒤로는 약간 다리가 떨리던 증세도 완전히 사라지고 두 다리가 너무 가벼워서 뛰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만나 8년 된 파킨슨병을 치료받고 가족과 함께 만민의 양떼가 되어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 “간암을 치료받고 생명의 제단에서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최복순 성도 (62세, 일본 동경만민교회)

저는 신학 공부를 마치고 2010년부터 일본 오키나와에 교회를 개척해 사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게 되었는데 큰 은혜와 감동이 임했습니다. 한번은 집에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한 줄기 빛이 비추면서 이재록 목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이런 영적인 체험으로 마음에 확신을 얻게 된 저는 동경에 있는 만민교회에 연락하여 이재록 목사님의 신앙서적을 받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아 성도들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제야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이단으로 잘못 배우고 오해하며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깨닫게 되었지요.

2011년 8월, 저는 한국에 가서 이재록 목사님을 만나 직접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지요.

이후 인터넷으로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듣고, 집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남편 장로님과 성도들은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여해 당뇨병으로 잘 걷지 못하던 성도가 걷게 되는 역사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던 2014년 12월 어느 날, 오후부터 갑자기 피를 토하기 시작한 저는 그 다음 날 새벽 5시 30분까지 계속되어 기운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제 꿈에 오셔서 기도해 주신 후 피가 멎고 기운을 차리는 신기한 일이 있었지요.

2015년 1월에는 갑자기 어지러워 일어나지 못해 구급차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진단 결과 간경화라고 하였습니다. 소변을 못 보니 몸이 붓고, 폐에는 물이 차고 황달이 심했지요. 이로 인해 우울증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병들어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눈물이 나고 삶에 회의가 찾아왔지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어서 성도들에게

제 상황을 알린 뒤 결국 2016년 5월에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 동경에 있는 딸집으로 이사를 갔지요. 이후 제 몸 상태는 더욱 나빠져 2017년 1월 말에는 간암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 3월부터 동경만민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GCN방송으로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드리며 최병란 담임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고는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하였지요. 주의 종이 아닌 성도가 되어 말씀을 통해 저를 비취보니 많은 것이 회개되었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제단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2017년 5월 초, 저는 치료받기를 사모하며 3일 금식기도를 드렸습니다. 한편 예배 시 GCN 생방송을 통해 당회장님의 환자기도가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정성껏 받았지요. 그 뒤 5월 말에 다시 진단을 받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 세포가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의사의 말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권능의 기도와 귀한 영적인 말씀으로 새 삶을 살게 해 주신 사랑하는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남편 김경권 장로와 딸, 손주들과 함께한 최복순 성도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북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자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3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